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월간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窓 / 강기창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급변하는 감사환경에서 중견 회계사들의 갈 길은?

Audit Issue / 이재경, 심호식 국민대학교 교수, 이우종 서울대학교 교수, 한승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회계신인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심층적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KICPA가 만난 사람들 / 구상수 공인회계사

“상속 자문분야에서 공인회계사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



구상수 공인회계사

“상속 자문분야에서 공인회계사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

지난해 상속 관련 책을 출간한 공인회계사가 있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자문뿐 아니라 집필·강연활동까지 활발히 하고 있는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를 만났다.(편집자)

Q1 컨설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상속전쟁'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네요. 일반인이 알기 쉽게 상속분쟁 사례를 실었는데, 상속자문 분야에서 최근 이슈와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상속 관련 자문은 조세 자문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세법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법 전반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자문 관련 이슈도 조세문제를 넘어 가족법적인 문제들과 연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유류분, 주식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 재계산 등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 회복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주식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역시 상속관련 자문분야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자문분야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가업승계와 관련된 분야는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 과도 연결되어 있어 공인회계사가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2 집필과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앞으로 관련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상파 방송 KBS의 '아침마당'에서 강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집필한 '상속전쟁' 책 내용을 요약해서 1시간 정도 강연했는데요. 방송 출연 이후 멀리 미국에서도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상담 건수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효과가 생각보다 꽤 큰 것 같습니다.

책을 집필하면서도 느낀 점인데요. 시중에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나를 쉽게 쓰게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딱딱하고 읽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좀 더 실무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쉬운 책을 한 권 더 출간할 생각입니다.



“ 최근 들어 유류분, 주식 명의신탁, 가업승계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 재계산 등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 회복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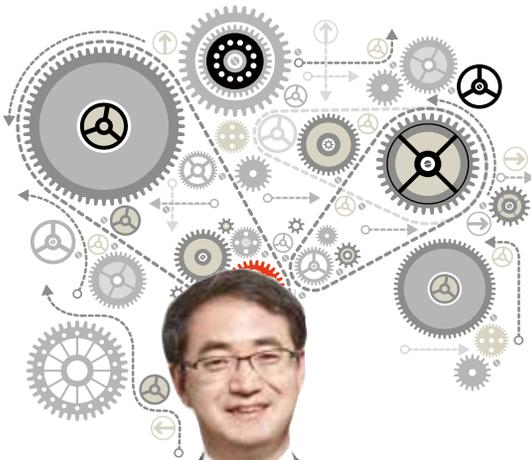
Q3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계기는 무엇인가요? 환경 변화로 달라진 점은?

회계법인에서 6년여 근무하다 법무법인으로 옮긴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에도 계속 세무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으로 옮기게 되면 민법, 상법, 행정법 등 세법을 둘러싼 제반 법률분야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시간은 회계법인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즌(Season)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지요. 대신 긴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딜(Deal)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각각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장점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4 상속자문 전문가로서 이뤄낸 성과는 무엇인가요? 또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무래도 작년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부실과세 방지 현장방문 교육에서 상속 및 증여세 분야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세무관서 및 지방청을 돌면서 다양한 국세공무원들을 만나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한 것은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관련 책 집필과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5 상속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현재 80대가 약 20만



“ 상속 관련 업무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법의 가족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업승계제도, M&A 세법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상속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명이 넘는데 비해, 70대는 30만 명이 넘고, 60대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10년 동안 상속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상속 관련 업무는 다른 자문분야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 관련 업무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법의 가족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업승계제도, M&A 세법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만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상속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